국민경제대책회의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

※ 본 보고서는 회의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1. 6. 16

지 식 경 제 부

목 차

Ⅰ. 해외 에너지·자원확보 성과와 평가 ····· 1

1. 해외 에너지·자원확보 성과 ····· 1

2. 해외 에너지·자원확보 노력에 대한 평가 ····· 4

Ⅱ. 해외 에너지·자원확보 방안 ····· 5

1.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후속조치 추진 ····· 7

2.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제고 ····· 8

3. 비전통 에너지·자원 본격 개발 ····· 12

4.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강화와 내실화 ····· 13

5.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 15

Ⅲ. 미래 에너지·자원확보 모습 ····· 17

Ⅰ.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성과와 평가

1 해외 에너지·자원확보 성과

(1)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 **생산광구 매입, 해외기업 M&A** 등을 통해 '08년 이후 주요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

1 **(석유·가스)** '07년 4.2%에 불과했던 자주개발률은 **'10년 10.8%를 기록, 최초로 두 자리대 진입**('12년 20% 목표)

○ **일일 생산량**(34.2만배럴)은 **'07년**(12.5만 배럴)**보다 3배 가까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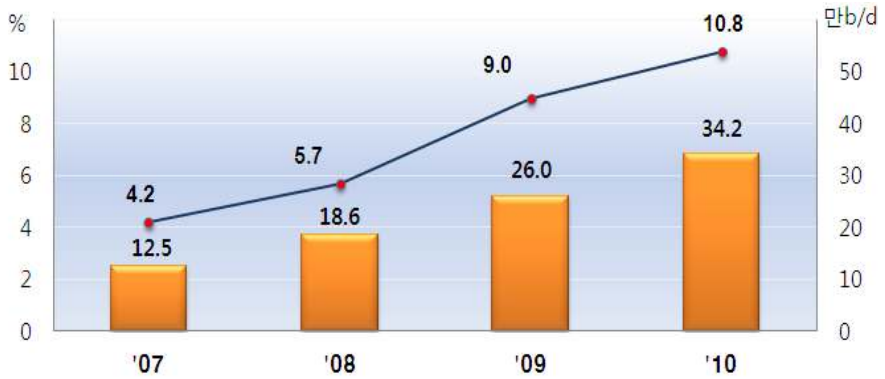
○ **민간기업, 공기업 모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

* 민간기업 : ('07) 6.6만b/d → ('10) 14.4만b/d ⇨ **7.8만b/d 증가**
  공 기 업 : ('07) 5.9만b/d → ('10) 19.8만b/d ⇨ **13.9만 b/d 증가**

○ 석유공사가 해외기업 **M&A를 통해 생산유전을 확보**한 것이 주효

* 미국 Ankor社, 페루 Savia Peru社, 캐나다 Harvest社, 영국 Dana社 등

< '07~'10년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물량) 실적 >



2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액은 2배**('07년 39.3억불 → '10년 81.0억불), 자주개발률은 **'07년 18.5%**에서 **'10년 27.0%로 급상승**('12년 32% 목표)

* 6대 전략광물 :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 아연을 제외한 **모든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이 증가**하였고, **'09년**에는 처음으로 **우라늄 자주개발 물량을 확보**(加데니슨 사업)

* 아연의 자주개발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입물량 증가로 자주개발률 소폭 하락
  - (수입량, 자주개발량) ('07) 787, 261.5 → ('10) 849, 274 (단위: 천톤)

○ **實수요기업*이 본격 진출하면서 자주개발 물량 증대**

* **한전** : 호주 바이롱 유연탄, 데니슨 우라늄 / **포스코** : 호주 로이힐 철광석

< '07~'10년간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액) 실적 >



①유연탄
('07)37.7% → ('10)48.3%
②우라늄
('07) 0% → ('10) 3.4%
③철 광
('07)10.7% → ('10)16.5%
④동
('07) 4.7% → ('10) 6.0%
⑤아연
('07)33.2% → ('10)32.3%
⑥니켈
('07)26.1% → ('10)36.8%

3 **(新전략광물*) '10년 자주개발률**은 당초 목표인 5.5%를 상회한 **8.5%**(자주개발액: 888만불, 수입액 10,544만불) **달성**('12년 12% 목표)

* 희유금속 중 新성장동력산업 연계성, 수급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중점 확보가 필요한 2개 광종(리튬, 희토류)을 선정 ('10.12월)

○ **리튬**은 **칠레**(엔엑스우노), **아르헨티나**(살데비다), **볼리비아**(우유니) 등 탐사·개발 사업 추진

○ **희토류**는 **중국** 포두영신 희토류 개발사업 **신규 진출**

(2)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

□1 정상급 자원외교를 통해 대형유전 개발에 참여

○ **UAE 유전확보** 계기로 **4%p 이상의 자주개발률 제고** 역량 확충

○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협정'** 체결('11.4월)로 **세계 3대 석유 매장국**인 **이라크 진출 기반 확보**

□2 잠재력이 크고 유망한 탐사·개발·생산 광구 확보

○ **'08년 이후 265개 사업**(석유·가스 92, 광물173)에 신규 진출

○ 특히, **新에너지源**인 **北極圈, 非傳統*** **유전 진출기반을 마련**하였고, **광물공사 M&A** ('11.4월)를 통해서는 **동광 탐사 및 생산 광구** 확보

* 기존 생산방식과는 다른 기술·방법을 활용하여 생산·추출되는 자원으로서, 비전통 석유(오일샌드, 초중질유, 오일셰일 등), 비전통가스(셰일가스, 치밀가스, CBM)를 총칭

□3 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석유공사는** M&A를 통해 '07년 94위에서 **'10년 74위**(생산기준)로 도약하고, **전략지역 진출을 위한 지역별 거점 확보**

○ **가스공사도 이라크 진출**('09) 계기로 **자원개발의 한 축으로 성장**

○ **광물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한 이후 우라늄, 리튬, 동 등 개발에 **선도적으로 투자**

□4 에너지·자원 확보 인프라(인력, 자금 등)를 강화

○ **자원개발특성화 대학**('09년 10개 지정) 제도를 도입해 **매년 기초 전문인력 300명 양성** 기반을 구축

○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5개 펀드 조성**(1조원 규모)

2 해외 에너지·자원확보 노력에 대한 평가

□1 경제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대응**하여 **전례 없는 성과** 거양

○ **'04년 이후 日本의 자주개발률이 22~23%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괄목할만한 성과**

□2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2년 말까지 전략적 완충 수준인 20%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자원개발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원부국으로 진입하는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

□3 자원개발 규모에 비해 **기술, 인력 등 자체 역량은 여전히 부족**

○ **자원개발 인력은 1,300명 내외**('10년 기준, 기술 인력은 600명)로 경쟁국에 비해 취약

* 세계 40위권의 자원개발 기업인 美 Anadarko社의 경우 자체 인력이 4,000명 수준

○ **탐사**(선진기업의 70% 수준)·**생산기술과 광구운영 능력도 미흡**

○ 탐사, 평가, 개발, 운영 등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기업도 미약**

□4 리스크는 다소 높지만 자원선점 기회가 많은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 등 자원부국 진출을 확대할 필요**

□5 상대국 사정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속여부 재평가 필요**

Ⅱ.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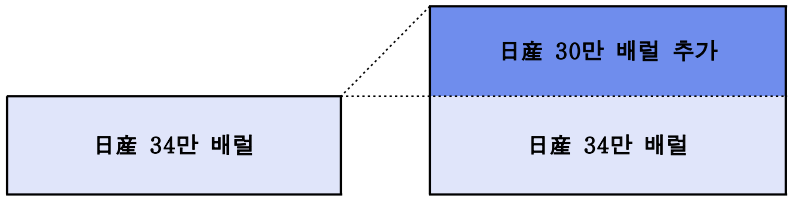
〈 추 진 목 표 〉

□1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를 '12년까지 달성토록 추진

○ 전략적 완충 수준인 20%대로 도약하고, **일본 수준에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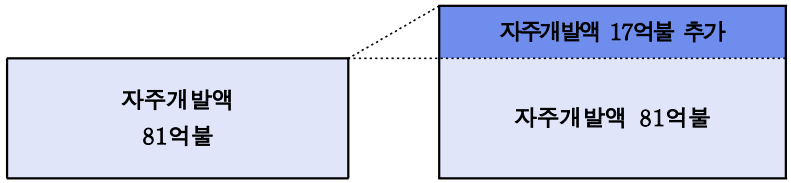
* UAE 유전확보에 따른 자주개발률 제고효과 4%p를 합할 경우 일본의 자주개발률('09년 23%)을 상회

〈 '10년 실적 : 10.8% 〉 → **〈 '12년 목표 :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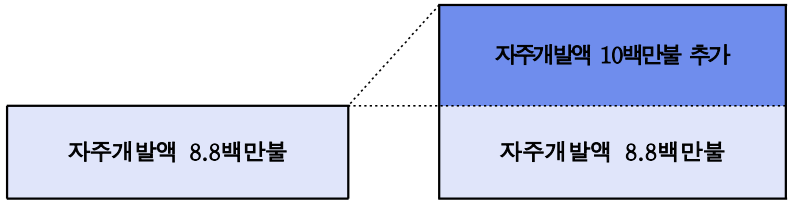
□2 (6대 전략광물) '12년까지 처음으로 **자주개발률 30%대 진입**

〈 '10년 실적 : 27% 〉 → **〈 '12년 목표 : 32% 〉**



□3 (新전략광물) '12년까지 **두 자릿수(12%) 자주개발률 달성**

〈 '10년 실적 : 8.5% 〉 → **〈 '12년 목표 : 12% 〉**



〈 추 진 전 략 〉

□1 '12년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

① **유망광구 매입, 기존광구 증산** 등을 통해 생산물량 확보

- **주요 생산광구 12개를 집중 관리, 추가 증산 물량 확보**
- **민간의 대형 M&A** 추진과 석유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 확대**

② 지역·시장 여건을 감안해 **광종별 특화된 확보 전략**을 추진

□2 에너지·자원 선점을 위한 전략국 진출과 新에너지원 확보

① **UAE, 이라크** 등 지역의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② **주요 자원별 타깃을 명확히 설정**해 **전략적 자원외교**를 추진

③ 미래 새로운 에너지源인 **비전통 자원개발 참여 확대**와 **함께 독자적인 자원개발 능력 확보**

□3 에너지·자원개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① **자원개발 공기업 대형화와 역량강화**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해외 자회사의 **내실을 강화하여 성과 극대화**

- 추진사업의 **유망성을 재평가**하여 자산매각 등을 통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

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자원개발 기술 확보 노력도 강화**

② 정부·국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대, 자원개발 펀드 활성화, 연기금 참여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재원을 확충**

1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후속조치 추진

◈ **UAE 3개 미개발 광구의 본계약**을 **'11.7월중 추진**하고, **이라크 4차 유전입찰에 참여하여 신규 광구 확보**

□ **UAE 유전개발 사업 진출 후속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

○ **10억 배럴 이상 유전 참여**는 UAE측 조광권 재계약 협상이 마무리되는 **'12년중 내용이 구체화되도록 참여방식 폭 등 협의**

*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민간사들이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움을 구성, 광구 지분 획득과 운영 등을 추진

○ **3개 미개발 광구 참여**는 양국 석유공사(KNOC-ADNOC)간 실무협상을 통해 '11.7월중 **본계약 체결** 추진

*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13년 조기생산 목표)

□ **이라크 유전개발 추가 진출과 함께 기존 사업의 성과를 제고**

○ 한-이라크간 협정 체결 후속조치로 **4차 유전입찰**('12.1월 예정) **참여*와 package 사업**을 통한 중·대형광구 확보** 추진

* 사전심사(PQ)에 석유공사 자회사인 Dana社 , 석유공사·SK이노베이션·LG상사가 공동 참여한 JV, SK이노베이션,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신청 접수

** Middle Euphrates 유전개발(6억배럴)-Karbala 정유공장(14만b/d) 건설 연계

○ 기존 **이라크 중앙정부 사업**(주바이르, 바드라, 아카스, 만수리아)의 **성과를 확대**

* 주바이르 광구 증산('10:26만b/d → '11:38만b/d), 바드라 '13년부터 원유생산 등

- **쿠르드 지역 유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탐사·개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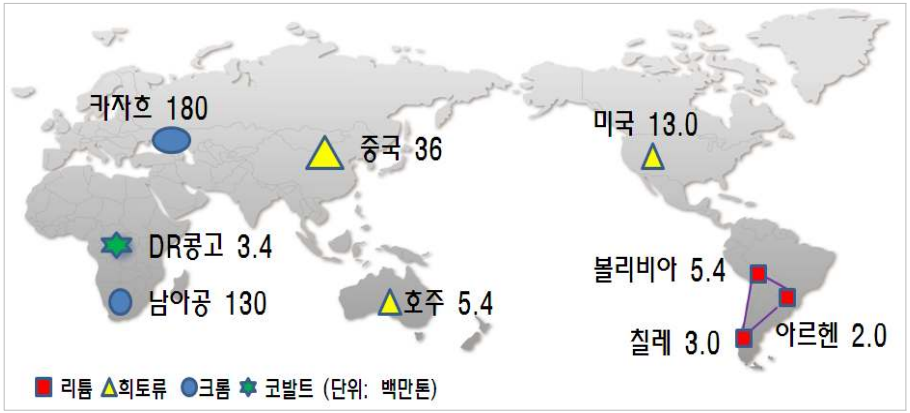
2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제고

(1) 희유금속 확보 방안

◈ **'14년부터 국내 수요의 6배 규모로 리튬을 확보**하고, **희토류가 풍부한 호주·남아공과의 협력관계를 구축**

가. 부존 현황

□ 희유금속은 **중국·호주(희토류)·남미(리튬)·DR콩고(코발트)** 등 **지역적으로 偏在**되어 있어, 광종별·국가별 **전략적 접근** 필요



나. 광종별 확보 전략

□ **(리튬)** 2차 전지산업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남미 삼각벨트**(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 **생산 추진**

○ **칠레**(엔엑스우노)·**아르헨티나**(살데비다)사업은 '14년 부터 **생산단계 진입하여** 연간 약 **5만톤** 탄산리튬 확보(국내 수요의 6배)

○ 리튬 최대 매장국인 **볼리비아**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협력모델** 마련

□ (**희토류**) 첨단 산업의 급성장과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여 **국내·외 생산물량을 확보**하고 **전략 비축** 확대

○ 기 확보한 중국(포두영신, 서안맥슨: 연간 1,200톤)뿐만 아니라, **호주·베트남·남아공***등에도 추가 진출

* 남아공 광물부존순위: 망간 2위, 크롬 2위, 티타늄 4위 등

○ 홍천, 충주 등 **국내 부존 유망지역에 대한 탐사***와 함께 희토류 사용저감기술, 희토류 소재화 등 **R&D 추진**

* 홍천·충주·양양·서산 등 4개 지역에 대한 탐사를 진행 중

○ 비상시 공급을 위한 전략적 비축물량도 **'14년까지 1,500톤 규모**(100일분)**로 확대**('10년말 기준 62톤 비축)

□ (**기타 희유금속**) **국내 광산 재개발**과 함께, **주요 부존지역에 대한 진출**도 적극 추진

○ **텅스텐·몰리브덴** 등 국내 부존이 확인되는 광종은 **국내 광산 재개발**을 통해 물량 확보

* '16년까지 국내 12개(몰리브덴 8개, 텅스텐 4개) 희유금속 부존 유망광산 정밀 조사 예정

○ 크롬, 코발트 등의 주요 부존 지역인 **아프리카** (DR콩고* 등) **진출**을 적극 검토

* DR콩고 광물부존순위: 코발트 1위, 다이아몬드 1위, 동 13위 등

(2) 6대 전략광물 확보 방안

◈ **중앙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 진출**하여 **우라늄과 銅의 자주개발률 제고** < 우라늄: ('10) 3.4 → **('12) 12%** 동광: ('10) 6.0 → **('12) 15%** >

가. 부존 현황

□ 자주개발 실적이 부진한 **동·우라늄**은 **남미·아프리카 지역**에 부존하고 있으며, **중앙아·호주 지역에도 다양한 광종** 부존



나. 확보 전략

□ (**우라늄**) 세계 원전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변동을 적기에 활용**하고, 실수요기업(한전, 한수원)과 광물공사의 **공동 진출** 확대

○ 자주개발률 획기적 제고를 위해 **카자흐스탄, 미주·아프리카** 개발 사업 진출 추진

○ 현지 정국 불안으로 지연되는 **니제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외교 노력** 병행

* 테기다 사업: 10년간 4,000톤U, 이모라렝 사업: 24년간 17,700톤U 확보

□ (**동**) 동광 개발 **전문기업 M&A**를 통해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12년까지 기존 사업의 **정상 생산 진입**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

○ 미국, 파나마, 페루, 볼리비아, 칠레 등 **미주 지역 內 생산벨트***를 구축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사업도 지속 추진

* 미국 로즈몬트 개발사업(한국지분 20%): '14년부터 생산
* 페루 마르코나 개발사업(한국지분 30%): '13년부터 생산

□ (**유연탄**) 광물공사는 운영권 확보가 가능한 **대형 사업을 위주로 실수요기업**(한전, 발전사 등)**과 동반 진출**

○ 최대 부존지역인 **호주·인도네시아** 內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몽골 타반톨고이** 등 신규 대형 사업 추진 가속화

* 몽골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은 매장량이 50억톤 규모로 최대 광산이며, 한국 기업은 일본·러시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 중

□ (**철광석**) 실수요기업(포스코) 중심으로 **호주·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기존 사업에서 물량을 확대**

○ **베네수엘라·페루** 탐사사업도 지속 진행

□ (**아연·니켈**) 아연은 동 개발시 부산물(by-product)로 확보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광 개발시 연계 확보**

○ 니켈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 성공을 통해 장기 물량 확보

* 암바토비 사업: 한국 컨소시엄이 27.5% 참여 중이며, '13년부터 年 6만톤 생산 – 총생산량의 50%인 年 3만톤 도입 가능하며, 자주개발률 20%p 제고 가능

3 非傳統 에너지·자원 본격 개발

◈ 방대한 매장량을 가진 비전통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30년까지 비전통 에너지·자원 물량비중을 20% 수준**으로 확대

* 비전통 자원 부존량 : (석유) 약 6조 배럴(추정), (가스) 6,825억톤(추정)
* '10년말 기준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물량 비중은 1% 미만

□ 매장지역,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자원별 특화된 전략 추진**

○ (**오일샌드**) **캐나다 Black Gold社, Harvest社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경험 및 기술을 확보**하여 **북미지역 사업을 확장**(석유공사)

○ (**초중질유**) 최대 부존(1,000~3,150억배럴) 지역인 **베네주엘라 오리노코 벨트** 지역 진출 추진

○ (**셰일오일**) 지분참여중인 美 Anadarko社의 **셰일오일 사업을** 통해 **역량을 확충**하고, 미국내 **사업 추가진출** 추진(석유공사)

○ (**셰일·치밀가스**) **旣진출한 캐나다** 사업을 기반으로 **인근 지역 광구를 추가로 확보**(석유·가스공사)

* 가스공사 : 캐나다 Encana社와 공동(50:50)으로 셰일·치밀가스 개발 사업 진행
석유공사 : 캐나다 Hunt社로부터 Horn River 셰일가스 자산 인수

○ (**CBM**) **호주 육상 CBM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몽골 CBM 탐사·개발 연구사업도 병행**(가스공사)

* CBM(Coal Bed Methane) : 석탄메탄가스

□ **新자원개발 기술 로드맵**('12~'20년)에 포함시켜 **기술개발 본격 추진**

□ 비전통 유·가스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 **'비전통 유·가스 개발 종합전략'** 수립 ('11.4/4분기)

4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강화와 내실화

◈ **석유공사** 생산규모를 **'12년에 日産 30만 배럴 이상**으로 확충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선도투자**를 확대

(1) 석유공사 대형화와 성과 확대

□ **'12년 日産 30만 배럴이상의 생산량 확보를 위해 자산 인수 추진**

○ **생산량 日産 5만 배럴 이상 규모의 유망 생산자산** 신규매입

○ **신규 생산자산 인수 재원 확보**를 위해 **공사 보유 우량자산 지분**의 일부를 **연기금 및 민간사에 매각하는 방안 추진**

* 美Ankor社 생산광구 지분 일부매각 추진중

□ **既인수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M&A 성과를 극대화**

○ 자회사별 **지역적 특성, 자산 구성 등을 감안한 PMI**(Post Merger Integration)를 통해 **피인수기업의 가치 제고**

< **자회사별 추진방향** >

① **생산광구 위주**인 **Ankor, Harvest, Sumbe社**

- 추가 시추, 유정 보수, 회수증진, 최적화 등을 통해 **생산 능력 극대화**

② 생산광구 이외에 **상당한 탐사자원량을 가진 Dana, Savia Peru社**

- 유망성이 높은 탐사광구를 중심으로 **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에 중점

○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자회사 전문인력**을 **인근지역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기술 이전과 비용 절감

* (例示) Harvest - BlackGold 개발사업, Ankor - 멕시코만 탐사사업 등

□ **유망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분양도, 매각 또는 사업종료**를 통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

* (事例) 예멘 70광구 지분중 일부를 프랑스 Total社 등에 양도

(2) 가스공사의 자원개발 역량 확충

□ **'19년 3억톤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 사업 확대**

○ 아프리카내 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모잠비크*·탄자니아 진출**

* '07년 모잠비크 Area4 해상광구(탐사 자원량 4억톤)에 지분참여(10%)하여, 현재 탐사 진행중('18년 생산목표)

○ **비전통 자원 개발**(북미, 호주, 몽골 등)**과 北極圈 개발**(캐나다, 그린랜드 등) 추가 추진

□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활용해 **개발-생산-구매의 수직일관체계 구축**

○ **메이저社와의 일관체계 공동운영**을 통해 **기술·노하우 습득 후** 전 부문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 추진

□ **자원개발 수익을 자원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3) 광물공사의 자원개발 선도투자 확대

□ 광물공사가 투자위험이 높은 지역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위험↓, 수익↑)

* 탐사·개발 단계사업에 생산단계로 진입한 사업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여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광물공사는 매각을 통해 재투자 재원 마련

○ 민간 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탐사** 지원, **정보 제공** 범위 확대

* F/S 여력이 부족한 민간 기업 조사 지원 확대(現 연간 60건 → 100건 이상) 추진

□ **광물개발 전문성 제고, 적정 부채비율 유지**를 위해 **인력*·자본 확대**와 병행해 **유망사업에 집중**

* 광물공사의 규모는 세계 20위 메이저 기업대비 자산 13%, 인력 5.4%에 불과

5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 **'13년에 자원개발 전문 대학원을 도입**하고, '12년부터 **민간기업**에 **정부 융자사업 전액 지원 추진**

□ (**인력양성**) 수요에 맞게 **분야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특성화대학**을 통해 **'15년까지 1,500여명**의 기초 전문인력 양성

- **해외 인턴십**(4~6개월)으로 **현장경험을 갖춘 인력 배출**(年 100명)

○ **협상 전문가 과정**(석사)을 통해 **'15년까지 100여명**의 전문가 양성

○ '13년부터 **자원개발 전문 대학원 도입 추진**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원개발 분야 석사 또는 석·박사 과정 운영(연간 20~30명 내외 인력 양성)

□ (**기술개발**) 환경변화를 반영해 **新자원개발 기술 로드맵 구축**('11년)

○ 기반기술-미래기술-상용화기술로 구분하여 **탐사기술, 비전통 자원개발 기술 R&D**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 (例示) ①기반기술 : 자원탐사·시추·개발 원천기술 등, ②미래기술 : 심해자원 개발, 비전통 자원개발 등 ③상용화 : 탄성파속도 리모델링, 3D채광 설계 등

□ (**서비스 기업**) **탐사, 시추, 기술평가·중개, 운영 등 4대 분야**의 전문 서비스 기업 육성

○ **국내 파급효과, 기술수준, 수요**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육성**

* (1단계) 탐사, 기술평가·중개분야 → (2단계) 시추 → (3단계) 운영

○ '11년 말까지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 (**투자촉진**) **정부·국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융자 사업은 '12년부터 지원예산 전액을 민간기업에 지원하고 지원규모 확대도 추진**

○ **국책금융기관의 자원개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

- **수출입은행 여신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프로젝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자문 서비스도 제공

* 수은 지원규모 ('10) 3.4조원 → ('11) 3.6조원(목표) → ('13) 5조원(목표)

-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기간을 확대**(3년→10년)하여 투자위험 부담을 완화

○ **旣조성된 펀드***의 **투자를 확대하고 펀드 조성을 촉진**

* 1.3조원 규모로 旣조성된 7개 펀드에서 총 7천억원 투자('11.5)

- 자원개발 펀드의 **배당소득세 감면 제도**('11년 일몰) **연장 검토**

- 펀드의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여 투자위험을 완화하는 **'투자위험보증**(무보)' 지원을 지속하고, 재원확충을 검토(500→1,000억원)

○ **연기금의 자원개발 투자*확대**를 적극 **유인**

* (事例)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공동으로 브라질 광물자원개발에 7,300억원 투자('11.3)

- **공기업 안정자산 매각 → 연기금 등 투자 → 공기업 투자재원 확보 → 신규 유망사업 추진**의 선순환구조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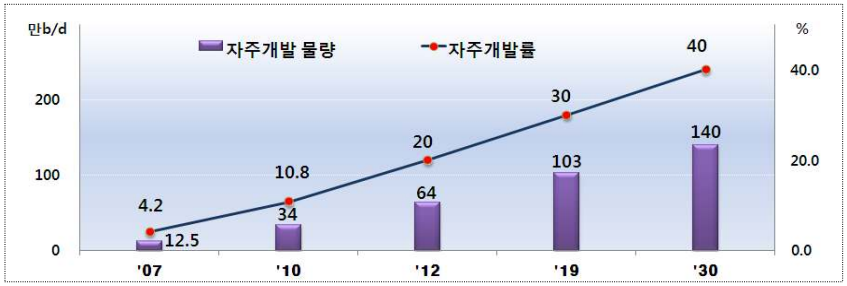
* 석유공사 생산자산 일부(美 Ankor 유전) 지분을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가에게 매각하는 방안 추진중

- 연기금이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무보 보증을 적극 지원**

Ⅲ. 미래 에너지 · 자원확보 모습

◈ '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07년 대비 5배 수준(20%), 전략광물(32%), 新전략광물(12%)은 '07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

1 석유·가스 : ('07) 4.2% → ('10) 10.8% → ('12) 20% → ('19) 30% → ('30) 40%



2 6대 전략광물 : ('07)18.5% → ('10)27% → ('12)32% → ('19)42% → ('30)50%



3 新전략광물 : ('07) 6.1% → ('10) 8.5% → ('12) 12% → ('19) 26% → ('30) 40%

